

# 생활에 '의욕' 삶에 '활력'



축사를 하고 있는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사진 왼쪽)과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유현순·김정순씨의 민요공연.



장애인 물품 전달식.



공로 표창을 수여받은 가수 송희숙씨(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윤향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원, 가수 김선아씨, 임화경 시니어의료기 대표.



지난 15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회 사랑의 별빛콘서트'에서 장애인 가수 송용섭씨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회를 맡은 김연경씨.



개나리의 품바공연.



퓨전음악가 정동길씨의 열정적인 무대.



가수 이수정씨가 무대 위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열창하는 가수 정순임씨.



가수 박부철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화려한 무대의상을 선보이며 무대에서 열창하는 가수 김민주씨.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최하고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회 사랑의 별빛콘서트'가 지난 15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사랑의 별빛콘서트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생활의 즐거움 용기를 줘서 정서적 안정, 생활에 의욕을 심어줘 삶의 보람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주매일신문사와 수정과 한울타리 협의회, 전주시장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공연에서 김양옥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 봉사단 이사장과, 이수정 단장, 이남숙·최주만 전주시의회, 황의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내빈 15명과 장애인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포함한 총 3부로 이뤄져 있으며, 1부 공연으로 문정태씨의 미술공연, 정취상씨의 플루트연주, 개나리의 품바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부에서는 개회식과 공로자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으며, 3부 공연으로 아랑고고장구, 가수 이수정·김민주·송용섭·박부철씨의 무대, 문민오씨의 기타 정하모씨의 하모니카, 이호기씨의 대금연주로 구성됐다.

김양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장애인들이 더 노력해 삶에 보람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봉사단체에서도 장애인 복지에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로 결해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